

바른 글과 나쁜 글 가려내는 우리말 '감별사'

《문장비평》 쓴 남영신씨

문장론은 문장을 잘 쓰는 방법이자 정확한 문장에 대한 인식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문장론과 문장교육은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치고 개성 개발에만 몰두해왔다고 남영신씨는 비판한다. 게다가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문장습관은 국민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왔다고 분석한다. 이 책에서 남씨는 학교 교육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사들의 자질도 문제라고 목청을 높인다.

《문장비평》(한마당)을 펴낸 남영신씨(54,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는 최근 디지털 매체를 통해 번성하고 있는 통신언어 등의 '일탈'에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 언어란 유기체여서 사회 흐름에 따라 그 어휘와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이고, 설령 악영향이 있다 한들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 전체가 '악문'이 된 가장 큰 책임을 '윗물'에 돌린다. 그가 볼 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고전적 가르침은 문장교육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대가급 문인들의 문장도 비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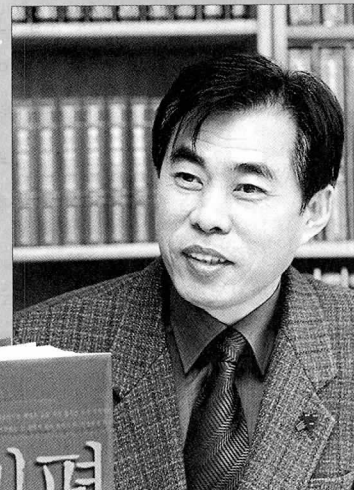
"글을 잘 쓴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학자, 소설가, 교사, 기자들이죠. 하지만 문체는 개성을 추구하고 '멋'을 부리다보니 불필요한 변형을 많이 가해서 기이한 형태의 문장을 많이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명사형으로 끝나거나 주어 없는 문장이 그렇습니다."

남씨는 1980년대 초반부터 사전작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한·국어 사전》(성안당)을 포함해 5종의 사전을 편찬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말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책들을 왕성하게 펴냈다. 《국어 천년의 실패와 성공》(한마당)과 《문장비평》이 그 결실이다. 이번 책의 부제는 '글쓰기 잘하는 민족을 위한 시론'이다. 글쓰기의 개념, 종류, 마음가짐, 잘못된 용례 비판까지 글쓰기의 안과 밖을 총괄하는 문장개론을 담고 있다. 그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문장'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인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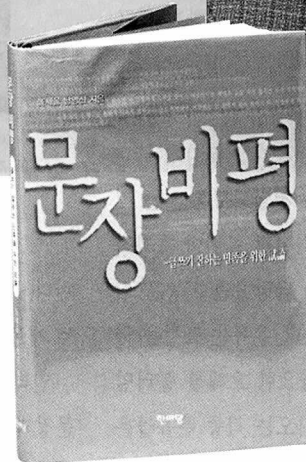
"우리 문화권에서 문장은 곧 쓰는 사람의 지식과 인격이었습니다. 이는 글이 곧 학문이었던 시대의 문장론이고 '보여지는' 측면을 중시한 관점이었죠.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문장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입니다. 정확하고 호감가게 표현하는 '방법론'이 문장론의 요체가 돼야 하죠."

그는 글을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고운 글, 좋은 글, 훌륭한 글, 바른 글, 나쁜 글, 아닌 글이다. 이는 형식과 문체에 따라서 문장을 구분하던 전통적 방법과는 많이 다르다. 고운 글은 향기가 묻어나는 시나 수필류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좋은 글은 정확한 용법, 논리적인 구성을 갖춘 글이다. 훌륭한 글은 으뜸 좋은 글이다. 바른 글을 쓰려면 어문 규정과 문장 구성원리에 정통해야 한다.

문제는 나쁜 글과 아닌 글이다. 나쁜 글은 자기만 알 수 있는 암호같은 글이다. 불필요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비비 꼬아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로, 이는 글의 사회성을 인식하지 못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가 이번 책에서 과감히 비판한 이효석, 조지훈, 피천득, 황석영, 복거일 등의 글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쁜 글'에 속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문장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돼 혼란을 줘 '연설문'의 격에 못미친다고 분석한다. 아닌 글은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다. 남씨는 의외로 아닌 글을 쓰는 사람이 많으며,



남영신씨



한마당/A5신/368면/15,000원

이런 사람들은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새롭게 공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문장교본은 시와 소설같은 문학작품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문장교육이 논리보다 감성을 더 중요시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들 문장은 문법이 엉망이죠. 그렇다고 딱딱한 문법서를 문장교본으로 삼을 수도 없으니 참 난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새롭게 공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교육의 모순도 지적해

그는 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논술시험 때문에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점수'를 따기 위해 읽고 배우는 문장이 제대로 몸에 익을 리 없어 안타깝다고 말한다. 남씨는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사들 가운데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가 이끌고 있는 '국어문화운동본부'는 문장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다. 곧 고전부터 현대까지 각종 문헌에서 문장을 추출해 단어의 빈도, 문장의 형식, 어구, 표현법, 문체 등을 통계화하고 이를 분석한 책을 펴낼 예정이다. — 강성민 기자